

# 용기와 만용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용기(勇氣)’의 국어사전 뜻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다. 중국말로는 위험을 두려워 않는 기개를 말한다. 통속적으로는 ‘배짱이 좋다’란 말로 흔히 쓰인다. 영어 단어 ‘courage’를 우리는 용기로 표현해 쓰고 있다. 이는 위험이나 불이익을 분명히 알고도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 뜻을 좀더 들여다 보면 지극히 어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필수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용기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을 흔히 ‘겁쟁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 용기란 말의 의미에 대해 곰씹어 봐야겠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의 위험이 더 커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는데도 도덕적 이유로 행동하는 용기이다. 고통, 위험, 불확실성, 협박에 직면하는 나약하지만 강인한 인간의 선택이자 의지로 볼 수 있다.

‘12.3 계엄정국’에 수많은 시민들이 결연한 의지와 기개로 반민주적 폭력에 맞섰다. 12월 엄동설한에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나와 낄밤을 지새며 저항의 가치를 들었다.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때문에 용기있는 사람이 소수일 것이란 그 본래 의미는 상당히 무색해졌다고 할 만하다. 요며칠새 말없이 내뿜던 필부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실로 오랜만에 목격했지만 특히 눈길끄는 ‘용자’가 보였다. 지난주말 부산의 한 계엄반대 집회현장에서 연설한 여고 3학년생이다.

이 학생은 “막 걸음마를 떤 제 사촌동생들과 남동생이 먼훗날 역사책에 쓰인 이 순간을 배우며 제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여기 나와 (의견을) 말했다고 알려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발언을 시작해 10여분간 비상계엄의 부당성과 기성 정치인을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오만, 무능, 비겁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한국이 늘 싫어 떠나고 싶었으나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다. 이어 국권을 버린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가자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18살 앳된 소녀의 연설이 인터넷상에 회자되자 그 용기에 찬사가 쏟아졌다. 현실을 외면해온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철부지같던 MZ세대 청소년들에 신뢰를 갖게 됐다는 답글도 부지기수였다. 진정한 용기는 굳센 기운, 기질, 호기, 무모함과 구분할 차이가 있다. 특히 기질처럼 인간 육체에 기반한 물리적 용기와는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또 담화를 발표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조기퇴진을 기대했지만 현 사태의 단초를 거대야당의 잘못으로 돌리며 전혀 그럴 뜻이 없음을 밝혔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라고 표현한다. 한자에서는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으로도 정의한다. 애초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과 탄핵, 검찰총장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집권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보인 것은 만용이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사리를 분간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스런 정치인이라 여론이 세상 가득하다. 자신의 행동이 만용임을 깨닫고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소수가 되기를 바란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 총암고와 동덕여대를 바라보며



기지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동덕여대와 총암고. 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된 학교를 꼽자면 두 곳으로 추려진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이슈가 사회면에서 비중을 줄이는 시기, 총암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른바 ‘총암파’ 구성원의 연결고리로 언론에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내부 ‘총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총암고 8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7회, 여인형 방첩 사령관은 17회 졸업생이다. 윤 대통령이

직에 전진 배치한 총암고 출신 동문들을 두고 신관 ‘하나회’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들’이 함집해 벌인 불똥은 엄한 곳에 튀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거나, 학교에 수백 통의 항의 전화도 빗발치며 도 넘은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명을 계엄고로 바꿔라’는 조롱도 나온다. 과거 명문 사립고로 이름을 날리던 총암고는 이번 사태로 ‘애꿎은 조롱거리’가 됐다.

결국 총암고 학생들은 교복을 벗었다. 총암고는 학생 안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졸업식이 예정된 내년 2월 6일까지 재학생들에게 임시로 교복 대신 자율복을 입도록 조치하면서다.

동덕여대도 곤란을 겪고 있다. 대학이 남녀 공학 전환을 논의하자 일부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학내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기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학교 추정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하면서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폭력 시위’를 했다는 과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동덕여대 출신 학생은 ‘채용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기업계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온다. 사실상 이는 우스갯소리를 넘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데 대해 노동법상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가 같다고 개개인의 뜻도 같은 건 아니다. 일부 과격한 시위에 동참한 학생들도 있지만, 동덕여대 재학생 전부의 책임은 아니다.

총암고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은 총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고, 현재 재학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시대 총암고 학생들이 윤 대통령 이름 아래 가려지지 않길 바란다. /h/j@

오늘의 운세 12월 13일 (음 11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뜻밖의 초대는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 48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미뿔 든 일이 있다면 오늘 처리. 60년생 이미 대결은 시작됐다. 72년생 투자에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 84년생 분수를 알고 행동해야.
- 소** 37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다. 49년생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61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 73년생 굴치 아픈 일은 숨기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고 상의. 85년생 노력 없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지 말 것.
- 호랑이** 38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 50년생 게으른 사람은 뭘든지 핑계만 댈다. 62년생 굳은살이 생겼으니 덜 아프다. 74년생 겨울은 곧 봄을 동반하니 희망이 시작. 86년생 중심이 없으니 안정을 하지 못한다.
- 토끼** 39년생 칠전팔기도 있으나 칠칠칠금도 있으니 지인 조심. 51년생 시간약속을 준수하라. 63년생 할 일 없이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75년생 말이 씨가 되니 신중하게 배려라. 87년생 속이 상해도 남의 일이 아니니 참아야 할 수밖에.
- 용** 40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날. 52년생 토끼띠 동로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64년생 고소득 투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76년생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88년생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성공은 시작.
- 뱀** 41년생 배우자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53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65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보이니 조심. 77년생 무슨 일든 팔팔 끼고 성공을 바라지 마라. 89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 말** 42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을 두지 마라. 54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결실이 보인다. 66년생 가족의 이해를 구할 일이 생긴다. 78년생 조직에서 문서 운이 있으나 결정은 다시 상의해서. 90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 양** 43년생 인맥을 활용하여 고마운 정보를 획득. 55년생 남을 배려하면 그만큼 나에게 온다. 67년생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79년생 어제도 내일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떠 있다. 9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 원숭이** 4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궁정의 마음으로. 56년생 우물거에서 송충 찾지 말고 순서대로. 68년생 부자로 살고 싶다면 입안의 허처를 구는 사람을 경계. 80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의 모범. 92년생 신용은 가장 큰 자산.
- 닭** 45년생 새로운 이성과 만남을 조심. 57년생 주변이 수상하니 언행에 신경 써라. 69년생 슬픔도 힘이 될 수 있으니 슬퍼하고 힘내라. 81년생 이러니 저러니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잘못을 반성. 93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 개** 46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날. 58년생 해피가 직전 가장 어두운 밤. 70년생 온전한 새로움은 없을 듯. 82년생 가정의 화목은 누가 대신해주지 못한다. 94년생 지출이 되어도 마음이 간다면 가는 대로 행동.
- 돼지** 47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아차피 혼자. 59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도 남다르게. 71년생 시간을 값어치는 느낌. 83년생 이렇듯 저렇듯 망설임보다 보면 기회는 사라져간다. 95년생 지난 일로 고민하다가 위축이 되니 빨리 접는 것이.



# 김상회의四季 인공지능 시대의 명리학

어떤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말은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고 논증하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급격하게 능력이 좋아지는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장의 생산성 향상, 마케팅 아이디어 개발, 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은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 특정 부문의 전담 비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금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인공지능이 뺏을 것이라는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결코 사람을 앞설 수 없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오래된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고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고전 중에서도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의문점을 내다보고 해법을 제시하는 명리학은 인공지능이 절대 넘볼 수 없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명리학을 비롯한 인류의 고전에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빙이다. 명리학은 명실상부하게 동양 고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긴 세월 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로 논리는 더 탄탄해졌고 수많은 사람의 사유와 경험이 더해지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 되는 지혜가 더해졌다. 이런 명리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건 불가능하다. 단순한 지식 이상의 인생 해법을 담고 있는 학문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전성시대가 온다고 해도 인류가 남긴 고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학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2	8	9	4	3		1		7
5			9		8	3		
			1				8	
		3	7					
9								3
				4	9			
	7				3			
		6	3		2			4
3	2		9	1	8	7	6	

2	3		9	5		6	8	4
1		8					7	
						2		
			3	7				2
5		9				4		3
7				6	1			
		3						
	1					7		6
6	8	2		4	3		9	1

9	2	8	1	6	9	2	7	8
7	1	9	2	7	8	9	6	8
8	6	2	8	7	9	9	2	1
1	8	6	7	9	2	8	9	2
8	9	7	2	9	8	1	2	6
9	2	9	6	8	2	8	1	7
6	8	2	9	7	1	7	8	9
2	7	8	8	1	6	2	9	9
2	9	1	9	8	7	6	8	2

###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